

# 17세기 초 동래 沙川面의 洞契 참여자들과 그 후손들\*

진 상 원\*\*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사천면 구동계 좌목』과 그 내용
- III. 구봉상과 창원 구씨가문
  - 1. 구봉상과 그의 가문
  - 2. 종족화와 친족구성
- IV. 그 외 동계 참여자들의 가문
  - 1. 남평 문씨의 지역적 분포와 이들의 가문
  - 2. 함안 조씨의 가계 분화
  - 3. 김녕 김씨: 김의련의 가계
  - 4. 창원 황씨: 황추학의 가계
- V. 맺음말

## | 국문초록 |

17세기 초에 동래부 沙川面에서 결성된 면단위 洞契의 좌목이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그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연구는 그 후손들의 사회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그 참여자의 사회적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87346)

\*\*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 myneo@hanmail.net

현재 전승되고 있는 이 지역의 동계 문서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 「구동계좌목」이다. 이 문서책은 1612년, 1623년, 1629년에 각기 작성된 좌목들을 구봉상이란 19세기의 인물이 수합해 1권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내지의 제명에는 “洞中座目”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17세기 초에 이 조직의 명칭은 ‘동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행정단위 역시 면이 아니라 그 하위의 동이었을 것이다.

출생 순으로 성명이 기재된 이 3개의 좌목에는 모두 63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들 중 동래부의 향청과 서원 및 향교의 임원 명단에서 그 성명을 찾아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는 이들 중에 양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을 단위에서 위세가 있는 양반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임은 때로 향사례를 행하고 계원들의 喪事에 부조하는 등 지역 엘리트들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조직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문서에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지역에 부과된 잡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동계의 참여자들 중 그 후손의 존재가 확인되는 이들을 선별해 그 후손들의 사회지위와 가계분화를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17세기 초 동래부의 사천면 동계 참여자와 그 후손들은 주로 이서이거나 무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양반이라 하더라도 고을 단위에서 위세를 지니지 못하고 향리나 무임으로서 활동한 이들이 많았다.

주제어 : 동계, 동안, 향리, 무임, 향반, 동래부

## I. 머리말

이 연구는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에 동래부 사천면에서 결성된 면단위 동계의 참여자와 그 후손들의 사회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 변방 변두리 지역의 사회 구성과 주민들의 존재 양상을 밝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선후기에 동래부는 읍내면을 중심으로 동면, 서면, 남촌면, 북면, 동평면, 사천면 등 모두 7개의 면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중 이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사천면은 현재 부산광역시의 중구와 서구, 사하구, 사상구 등 모두 4개의 구에 해당하는 광대한 수변 외곽지역이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읍지인 1740년(영조 16년)에 작성된 『동래부지』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동래부의 총호수 5,641호 중 사천면은 726호로 동래부 전체 호수의 13%에 불과했지만 지역은 이렇듯 넓었는데 이는 인적이 드문 변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이렇듯 사천면은 중앙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동남부 국경지역의 군사 요새였던 동래부의 변방 외곽지역이었다. 원래 이 지역은 동래현의 속현이었던 동평현에 속했다. 1547년(명종 2년)에 동래현이 도호부로 승격되면서 동평현이 동래부가 직접 관할하는 면으로 귀속됨에 따라 그 외곽 지역인 이곳도 동래부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다 1740년(영조 16년) 이전 그 어느 시기에 동평면에서 분리·독립하여 사천면으로 편제되었다.

통상 이러한 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문헌이나 문서들이 남아있지 않기 마련인데 이와 달리 이곳에는 조선후기에 작성된 문서들이 다수 전승되고 있다. 이 연구의 자료가 되는 17세기 초의 동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동계 관련 문서들과 19세기 말에 작성된 구식 호적대장의 중초 및 촌계 관련 문서들이 그것이다.

조선후기 동래부 각 면의 면단위 동계 문서들이 이 사천면뿐 아니라 남촌면과 동하면에서도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1678년(숙종 4년)에 동래부사가 시행한 주현향약체계의 하부조직으로서 편성된 면단위 동계의 문서들이고 그 이전인 임란 직후 17세기 초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운영한 것은 이 연구가 다루려 하는 사천면의 것이 유일하다.

洞契와 그 운영 문서인 洞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양반 사족의 위세가 높았던 중심부 지역

1) 김동철 외, 『東萊府誌』, 『東萊史料』 2, 驪江出版社, 1989, 34쪽.

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그리고 말단 향촌 단위가 아닌 면단위에서 결성된 동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이들은 대체로 주현향약의 하부조직으로서 기능한 것으로 향약과 관련하여 다루어졌다.<sup>2)</sup> 그러나 사천면의 그것은 아직 주현향약이 실시되기 이전에 결성되어 운영되다 17세기 후반에 이를 해체·재편성하여 주현향약이 실시되었다는 특색이 있다. 다시 말해 이 연구의 대상은 면계라고 칭할 수 있는 면단위로 운영되는 동계로서 향약과 무관하게 창설되고 운영된 것이란 점에 선행연구의 사례들과 구별된다.

동남부 해안의 변경 지대였던 동래 지역은 군사적 성격이 강하였고 문과급제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할 정도로 양반 사족의 위세가 아주 미약하였다.<sup>3)</sup> 이러한 주변부 지역의 사회 양상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대체로 중심부 지역에 집중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외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록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17세기 초에 동래부 사천면에서 결성된 동계의 동안을 정리 분석한 후 이 동계에 참여한 이들의 존재양상을 알기 위하여 그 후손들의 사회 지위를 살펴보려 한다. 현재 이 동계의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후손들의 사회지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사회지위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임란 직후 주변부의 외곽 변두리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했던 이들의 존재양상을 알기위한 지역사적 관심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통해 얻어진 이 계층의 사회지위의 변화 양상은 한국사 일반에 대한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향촌사회연구회, 『韓國의 鄕約 洞契』,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996.

3) 이훈상, 『부산여성상 I - 근현대 속의 부산여성상과 여성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9, 25쪽.

## Ⅱ. 『사천면 구동계 좌목』과 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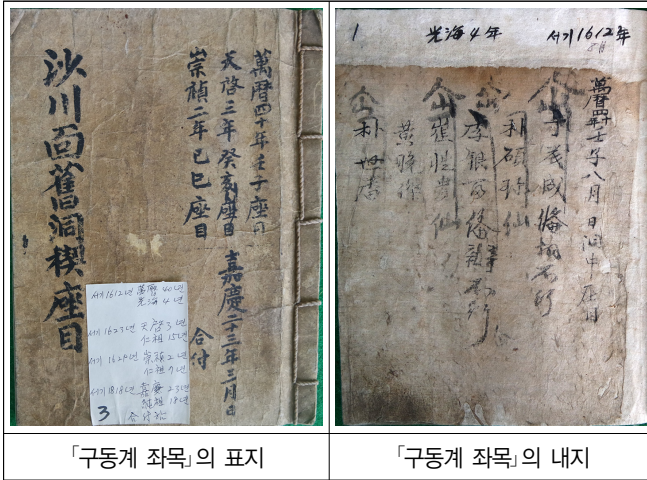
현재 전승되고 있는 동래부 사천면 동안들 중 가장 오래 된 것이 『沙川面 舊洞契 座目』(이후 『구동계좌목』으로 칭함)이다. 이 문서책은 1612년(광해군 4년)과 1623년(인조 1년) 및 1629년(인조 7년)의 좌목들을 具鳳祥이란 후대의 인물이 1818년(순조 18년)에 수합하여 1권의 문서책으로 만들어 표지를 붙여놓은 것이다. 구봉상(1781년~1856년)은 19세기 전반기에 중군을 역임하였던 동래부의 최고위 무임이었다.<sup>4)</sup>

19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구봉상이 1권의 문서책으로 엮어놓은 이 세 좌목의 지질이 임란 직후에 만들어져 후대의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그 필체가 조악하고 어지럽게 기록되어 있어 17세기 당대에 동계 운영과정의 현실적 필요에서 작성한 진본이란 사실을 실물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이 문서의 표지에 표기된 제명이 비록 ‘구동계 좌목’이지만 구동계란 명칭은 후대에 구봉상이 날개로 떨어져 있던 3개의 좌목들을 1권으로 합본하면서 자신이 살던 시기의 동계와 구별하여 표지에 이러한 제명을 붙였다고 여겨진다. 이 문서책에 모아져 있는 각 년도의 좌목에는 다만 ‘동중 좌목’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17세기 초 당시 이 동계의 명칭은 ‘구동계’가 아니라 ‘동계’였음이 분명하다. 즉 이 문서책은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에 작성한 동래부 사천면 동계의 좌목인 것이다.

따라서 이 좌목이 최초 작성된 1612년까지는 사천면이 면단위의 행정구역이 아니라 그 하위 단위였던 동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천동이 속했던 동평현이 명종 연간에 폐지되어 동래부에 편입되면서 동래부의 동평면으로 편제될 때 사천면 지역

4) 『昌原具氏世譜』 1, 昌原具氏世譜所, 1981, 210쪽. 이훈상·손숙경, 『조선 후기 동래의 武廳先生案과 武任 총람』, 동아대 석당학술원·한국학연구소, 2009, 42쪽.



「구동계 좌목」의 표지

「구동계 좌목」의 내지

은 동평면의 하부 행정단위인 사천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현존하는 동래부의 가장 오래된 읍지인 『동래부지』(1740년, 영조 16년)가 나오기 이전 그 어느 시기에 사천동이 동평현에서 분리되어 사천면으로 승격되었다고 여겨진다. 1612년에 작성된 좌안에는 최고 직임자의 호칭이 ‘洞中’이었으나 1623년의 것에는 ‘面有司’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1612년과 1623년 사이 그 어느 시기에 사천동이 면으로 승격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동계’와 ‘동중’이란 호칭이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단언하기는 어렵다.<sup>5)</sup>

이 동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온다.

무릇 천하의 사물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 그러므로 우리 계도 처음에는 九人契, 중간에는 舊洞契, 끝에는 戀舊契가 되었으니, 이것

5) 18세기에 주현형약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할 때도 여전히 ‘동계’란 호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때의 동은 여러 동을 합한 면 단위란 의미를 지닌 대동(大洞)의 약칭이었다.

역시 변하고 또 변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왜 九人契라고 했습니까?”

“옛날 임진왜란을 겪은 뒤에 환경이 바뀌고 사람도 드물어 들판에는 슬피 우는 통곡소리가 나고 가문마다 돈독한 친분이 없어져 오직 사귀는 이는 9인뿐이었으므로 그러니라.”<sup>6)</sup>

조선후기 동래부 사천면의 면단위 동계가 임진왜란 직후에 이 전쟁의 생존자들 중 지역에서 엘리트라 자처하는 9인이 만든 모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이 글은 1920년대 초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 사이의 전승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전승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17세기 초에 작성된 『구동계 좌목』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논문의 말미에 <부록>으로 수록한 <표33>은 『구동계좌목』에 수록된 인명들과 이들에 대한 정보들을 수록된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이 좌목에 등재된 이들은 모두 63명인데 이들 중 현존하는 동래부의 향청과 서원 및 향교의 임원 명단에서 그 성명을 찾아볼 수 있는 이는 한 명도 없다.<sup>7)</sup> 이는 이들 중에 사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현 단위에서 위세가 있는 사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1612년과 1613년 및 1629년의 좌안에 이 인명들이 수록된 순서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sup>8)</sup> 이는 사회 지위나 연령 등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 이들의 인명을 수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sup>9)</sup> 그리고 극히 제

6) 『연구계 중수 좌안』, 1922년.

7) 동래향교지편찬위원회, 『동래향교지』, 동래향교, 2010, 490~491쪽과 521쪽 참조.

8) <표1> 중 연번 5의 황만결과 연번 42의 황추학은 예외적으로 수록 순서에 차이가 있어 성명 뒤에 1과 2를 붙여 표기하였다.

9) <표1>의 연번 35의 趙國璣(1551년생)은 그의 조카인 趙億千(1570년생)보다 뒤에 수록되어 있는데 付記에 ‘老’라고 표기되어 있다.

한된 내용이지만 연구자가 현재 알아낸 이들의 정보를 정리한 것이 <부록>의 <표 33>의 내용 중 ‘비고’이다. 이 중 사회 지위를 보여주는 정보는 선무원종공신에 관한 것인데 임진왜란 직후 조선왕조 사회에서 임진왜란에 참여한 의병장이나 선무원종공신은 사회 지위와 발언권을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저명한 양반 가문의 顯祖들 중에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의병장이 많은데 두드러진 사족이 존재하지 않았던 동래 지역에서는 선무원종공신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sup>10)</sup> 동안에 수록된 이들이 모두 63명인데<sup>11)</sup> 이 중 선무원종공신이 6명이나 되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최전선으로 전쟁 내내 왜병이 주둔하였던 동래 지역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임란 직후 동래 사천면에서는 이 전쟁에 참가해 공을 세운 이들 선무원종공신들이 주도 엘리트로서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일 사회 지위를 기준으로 동안에 그 성명을 수록하였다면 이들 선무원종공신 6명의 성명이 모두에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수록된 위치는 동안의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최후반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의 <표 33>의 연번 26번인 조억천은 자신이 선무원종공신은 아니었지만 그의 집안에 선무원종공신에 봉해진 이가 4명이나 있는 인물이다.<sup>12)</sup> 그가 1570년(선조 3년)생인데 <표33>의 연번 58번인 조금룡이 그의 아들이고 연번 61번인 손희조가 그의 사위이다.<sup>13)</sup> 그리

10) 민선희, 「조선후기 동래의 향반사회와 무청」, 『역사학보』 139, 1993, 122~123쪽.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145~198쪽.

11) 연인원은 66명이지만 중복된 이가 3명 있어 실인원은 63명이다.

12) 이훈상·진상원, 『조선후기 동래 사상면의 함안 조씨 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 석당학술원·한국학연구소, 2015, 42쪽, 29~55쪽. 진상원, 「조선후기 동래 사상면 함안 조씨 가문의 가계 분화와 사회 지위의 차이 및 종족화의 두 방향」, 『한국민족문화』 55, 2015, 3~46쪽.

13) 『咸安趙氏東隱公(南溪公后)派譜』, 咸安趙氏東隱公派宗門會, 2008, 132~133쪽.

고 연번 16번인 선무원종공신 구영취의 동생이 연번 47번의 구영립이다. 또 연번 33번인 정극치의 아들은 연번 55번의 정의훈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동안의 성명 수록 순위 기준이 출생 순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1612년의 동안에 등재된 이들이 모두 47명인데 이들 중 그 11년 후에 작성된 1623년의 동안에는 등재되지 못한 이들의 수가 18명이다. 거의 40%에 가까운 이들이 그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이 중 12명이 사망하였고 타지로 이거한 이가 3명이며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이가 3명이다. 지나치게 적은 사례이지만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매년 당시 성인의 약 2.6%가 사망하였고 인구의 약 4%가 타 지역으로 이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47명의 계원들 중 18명이 사라진 대신 8명이 충원되었는데 이 중 수록 순위가 낮은 젊은 층은 겨우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명이 연번 14번에서 33번에 걸쳐 있는 중장년층이어서 이전에는 가입이 허락되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어서 1623년에 작성된 동안에 등재된 이들이 37명인데 그 6년 후인 1629년의 동안에는 등재 되지 못한 이가 11명이다. 약 30%에 달하는 이들이 그 사이에 사라졌다. 이 중 5명이 사망하였고 타 지역으로 이거한 이가 2명이며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가 4명이다.<sup>14)</sup> 앞의 경우보다 더 부정확하고 적은 사례이지만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적어도 매년 당시 성인의 2.3% 이상이 사망하였고 인구의 약 1% 이상이 타 지역으로 이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37명의 계원들 중 11명이 사라진 대신 9명이 충원되었는데 이 중 연번이 앞서는 노장층은 아예 없고 연번 29번에서 42번까지의 중년층도 3인에 불과하며 나머지 6명이 모두 연번 58번 이후의 젊은이들이다. 그 이전에는 가입이 허락되지

14) 연번 39의 金永元은 징계로 제명되었는데 그 사유를 付記하고 있다.

못했던 이들에게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이번에는 정극치의 아들과 조억천의 아들과 사위 등 기존 계원의 자식들이 다수 들어왔다.

그리고 이 문서책에는 1612년과 1623년의 좌목 뒷부분에 약간의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幬布는 射中에서 收습하였고 그 밖의 半丁은 姜億山이 또 扶助하여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계의 행사로 활쏘기 대회 즉 향사례를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좌목책의 말미에는 洞中에서 계원들의 喪事에 부조한 장부가 첨부되어 있어 이 동계가 기본적으로 지역 엘리트들의 친목 및 상호부조 조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1678년에 이 동계를 계승한 조직이 해체·재편성되어 주현향약체계의 하부조직으로 되었다는<sup>15)</sup> 사실과 아울러 비록 19세기 초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이 계가 결성된 것은 친목과 상호부조 외에도 당면한 현실적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무릇 이 계는 우리 선조들을 위해 다시 만든 것이다. 아아, 우리 선조들이 선조 연간에 이 계를 만든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개혁하는 것이니, 그 동안 해왔던 일들은 모두 공익(公益)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백성을 위하고 민폐를 없앤 것이니, 예사롭게 볼 것이 아니다.

옛날 임진왜란 직후에 거주민이 적어 국역(國役)에 응할 길도 없었다. 그리고 사또가 도입할 때 밀양 삼랑진에서 우리 면의 모라리로 와 읍내로 들어가니 구관 사또 역시 그렇게 하였다. 그 맞이하고 보낼 때 경비가 아주 많이 들었는데 계중에서 전례대로 물자를 내어 행사를 모두 맡아 거행하였다.<sup>16)</sup>

15) 진상원, 『조선후기 東萊府 沙川面(沙上面) 洞案 연구를 위한 예비적 검토』, 『향도부산』 37, 2019, 312쪽.

16) 蓋斯契也 爲祖先而復設也 唯我祖先 在萬曆年間設施爲契者 至于二百餘年 今始改革

18세기 후반에 주현향약체제 하부조직으로 기능한 면단위 동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면단위 동계를 따로 만들고 자신들의 조직을 ‘舊洞契’ 또는 ‘戀舊契’라 칭한 배경을 기술한 내용이다. 이로 보아 17세기 초에 결성된 면단위 동계가 현재 남은 기록상에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면에 부과된 잡역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 좌안에 등재된 이들의 성씨를 조사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사천면 구동계 좌목』에 입록된 성씨들

| 성씨<br>연도 | 姜                                            | 仇  | 金  | 文 | 朴 | 方 | 徐 | 孫 | 李 | 鄭 | 丁  | 趙 | 崔  | 許 | 黃  | 계   |
|----------|----------------------------------------------|----|----|---|---|---|---|---|---|---|----|---|----|---|----|-----|
| 1612년    | 2                                            | 5  | 5  | 2 | 2 | 2 | 3 | 0 | 4 | 1 | 4  | 1 | 6  | 3 | 7  | 47  |
| 1623년    | 2                                            | 4  | 5  | 2 | 3 | 1 | 1 | 0 | 2 | 0 | 3  | 1 | 3  | 3 | 7  | 37  |
| 1629년    | 1                                            | 3  | 3  | 2 | 2 | 1 | 3 | 1 | 2 | 0 | 3  | 3 | 3  | 2 | 6  | 35  |
| 계        | 5                                            | 12 | 13 | 6 | 7 | 4 | 7 | 1 | 8 | 1 | 10 | 5 | 12 | 8 | 20 | 119 |
| 비고       | 1612년: 公事員 朴 洞中 朴, 黃<br>1623년: 公事員 仇 徐 面有司 黃 |    |    |   |   |   |   |   |   |   |    |   |    |   |    |     |

먼저 계원의 수가 1612년에는 47명이었는데 1623년과 1629년에는 각기 37명과 35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들의 성씨는 모두 15개로 이 중 黃氏가 가장 많고 金氏, 仇氏와 崔氏의 순인데 최다수의 성씨인 황씨 성을 가진 인물이 최고 직임을 맡고 있었다. 이들 중 후손들이 이

而其間之事 皆爲公盡誠 爲民救弊 則非所以尋等例視也 昔在壬辰兵亂之後 居民鮮少 無路從役 而且官使到任時 自密陽三浪 到本面毛羅里 因到于邑 舊官亦然 其於迎送之際 不費頗多 自契中 拔例出物 專當舉行矣 其後百餘年之後 新舊使逢迎之事 歸于北面 則前日迎送時所用釜鼎鑪器等物 斥賣取息 買土作物 當用於民間徭役 居民名曰舊洞云矣 年前因北面居民呈狀鄉作廳稟記及面尊位稟記 題音內數百年年久之物 卒難通變置之事 教是矣 此皆古人爲民救弊之本意也 以此舊洞餘物十八斗地畝 屬之面中 使爲民瘼之物 則豈非成遂祖先之本意乎 然而舊洞餘物從新面得其名 而其於二百年流來之名簿及文蹟 無?歸處 至於等棄泯滅之境 豈不慨然哉 今又復設一契 名爲戀舊契 而一遵祖先之遺意 以遂後孫之誠心 各其勉之勉之 幸甚幸甚

지역에 세거하여 그 소재가 파악되는 仇氏<sup>17)</sup>, 文氏, 趙氏, 金氏, 黃氏 등 다섯 성씨들의 가계를 추적하고자 한다.<sup>18)</sup>

### Ⅲ. 구봉상과 창원 구씨가문

#### 1. 구봉상과 그의 가문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에 작성된 사천면의 좌목 세 점을 모아 한 권의 문서책으로 만들어 남긴 구봉상은 동래부 군사들의 최고 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중군을 역임하였던 19세기 전반기의 인물이다. 그의 성명이 새겨진 비석들이 현재 남아있는데 동래부사 황일하와 성수묵의 영세 불망비와 동래부사 오한원과 윤노동의 창덕선정비가 그것이다.<sup>19)</sup> 이에 따르면 황일하의 불망비를 세울 때 그는 ‘監役’을 하였고, 성수묵의 비에서는 ‘責應’이란 소임을 맡았다. 그리고 윤노동과 오한원의 선정비에는 그가 ‘色吏’였다고 새겨져 있다. 이로 보아 그는 동래부의 최고위 무임직에 오르기 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 동래부의 무임으로서 뿐 아니라 향리로서도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향리들이 무임의 직에도 배속되어 자신들의 직임 부족 현상을 해소했다. 그리고 19세기에 오면 이들이 그 동안 향반들이 독점해 온 최고위 무임직인 중군

17) 창원 구씨는 1791년(정조 15년)에 왕명으로 姓의 漢字를 仇에서 具로 바꾸었다.

18) 그 외 나머지 성씨들은 후손을 찾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9) 동래부사 黃一夏의 재임기간은 1705년 1월부터 1706년 8월까지이며 暨碑年度는 1831년, 成遂黔은 1837년 4월부터 1838년 11월까지이며 수비는 1839년, 吳翰源은 1806년 2월부터 1809년 2월까지이며 수비는 1818년, 尹魯東은 1809년 1월부터 1812년 4월까지이며 수비는 1818년이다. 『東萊府使：忠과 信의 목민관』, 부산박물관, 2009, 10~13쪽. 김병섭, 『昌原具氏 東萊門中誌』, 창원구씨 동래문중, 2012, 246~251쪽.

의 직위에도 오를 수 있게 되었는데 배봉상이 바로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는 그의 가계 구성원들 중 유일하게 중군의 직에 올랐던 인물이다. 다시 말해 그는 무임의 직을 맡기도 했지만 원래 동래부의 향리 출신 가계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동래부의 『무청선생안』에 중군과 천총 및 행수, 별장, 병방, 기지구기수초관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상급 향리들의 명부인 『부청선생안』에 그의 성명이 수록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sup>20)</sup>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사후에 종삼품 통훈대부 규장각 직각으로 추증되었는데 그의 묘소는 현재 부산 동래구의 사직동에 해당하는 서상면 여고리에 있었다.<sup>21)</sup>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그가 이 동안들이 작성되었던 사천면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조선후기에 향리들은 대체로 읍내에 세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천면 동계의 초기 동안들을 수합하여 1권의 문서책으로 묶어 남겼던 까닭은 그의 선조가 임란 직후 동계를 결성했던 인물들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입향조가 동래에 들어온 이후 최고위직인 중군에 자신이 올랐기 때문에 그는 이를 기념해 조상의 행적이 적혀있는 17세기 초의 동계 좌목들을 모아 1권의 문서책으로 남겼다고 생각된다. 그 이전까지 동래부 무임들 중 최고위 직인 중군은 동래의 향반들이 독점해왔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향리가문의 인물은 중군이 될 수 없었다. 그러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신분적 제한을 넘어 중간 계층 출신의 인물도 중군의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구봉상은 신분적 한계를 넘어선 승진을 기념해 선조들을 기리는 이러한 작업을 하였을 것이다.

임란 당시 禁軍으로 참전하여 선무원종공신 2등훈을 받은 구영취가 구봉상의 직계 선조인데<sup>22)</sup> 그는 임란 후 사천면의 면단위 동계를 결성

20) 이훈상 손숙경, 앞의 책, 2009, 42쪽.

21) 『昌原具氏世譜』 1, 昌原具氏世譜所, 1981, 210~211쪽.

22) 김병섭, 앞의 책, 122쪽.

한 중심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왜병의 침입으로 동래성이 함락되자 그는 자신의 세 아들 應震, 應男, 應達 및 사위 文澤龍과 함께 소산역 전투에 의병으로 참전하였다고 전한다.<sup>23)</sup> 이들의 족보에 의하면 이 구영취의 증조부 때부터 분묘가 현재 부산 사상구 덕천동에 소재해 있어 이 가계가 임란 이전부터 사천면에 세거해 왔음이 분명하다.<sup>24)</sup>

이 가문의 인물들 중 동래부의 「무청선생안」과 「부청선생안」에 등재되어 있는 이들을 찾아내어서 정리해 보면 <표 3> 과 같다.<sup>25)</sup>

동래부의 「무청선생안」이나 「부청선생안」에 등재된 이들은 모두 구영취의 장남인 應震의 삼남 仁甲의 후손들이다. 특히 인갑의 장남 汝軾의 후손들에 집중되어 있어 이 가문의 분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여식의 삼남 渭重의 장손인 致楨이 상급무임인 파총을 역임하고 부청선생안에도 성명이 등재되어 있어 있는데 그의 장남이 중군을 역임하고 초기 동안들을 1권으로 합본한 구봉상이다. 구봉상의 장남 琪鎭과 그 아들 汶龍이 무임을 역임하였고, 삼남 萊鎭의 아들 泌龍과 사남 碩鎭 및 그 아들 澤龍, 그리고 오남 繪鎭의 아들 晩龍의 성명이 「부청선생안」에 실려 있다. 특히 사남 碩鎭의 아들 澤龍은 동래고등학교의 전신인 동명학교의 제 4대 교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그의 장남 然壽는 한말에 무과에 급제하여 국비로 일본에 유학을 간 개화파의 인물로서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연루되기도 했고 통감부의 경무사, 경시부감, 경무관을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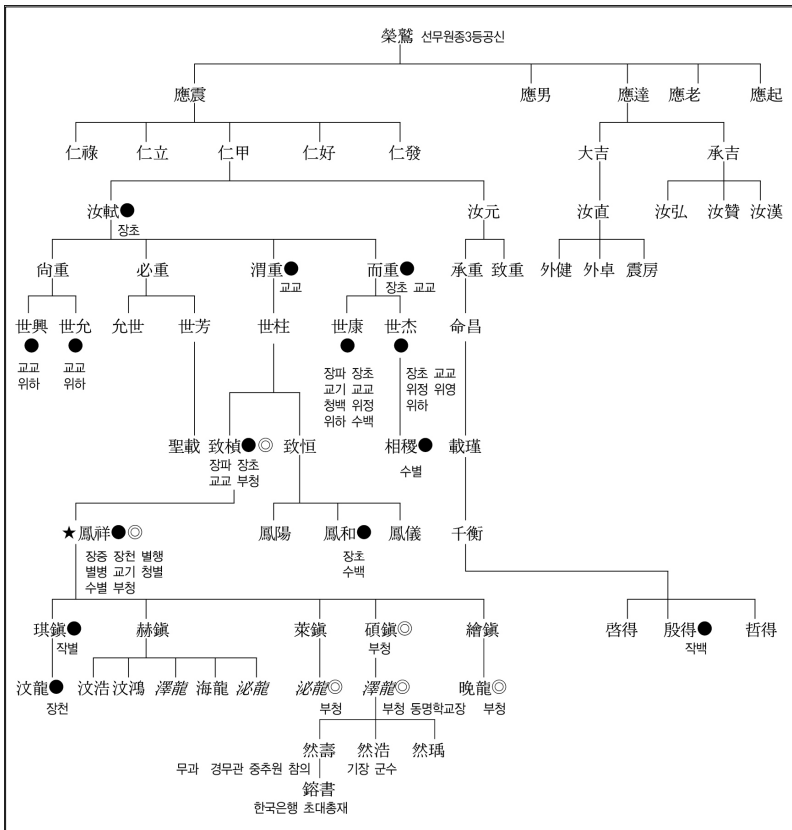
23) 김병섭, 앞의 책, 149~150쪽.

24) 『昌原具氏世譜』 1, 1981, 5쪽.

25) 이 연구의 도표에 표기된 무임과 향리의 직임은 편의를 위해 약칭을 사용하였다. 약칭의 원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장중**: 장관청 중군, **장천**: 장관청 천총, **장파**: 장관청 파총, **장초**: 장관청 초관, **별행**: 별군관청 행수, **별병**: 별군관청 병방, **별군**: 별군관청 군기관관, **별별**: 별군관청 별군관, **별대**: 별군관청 대솔관관, **교기**: 교련청 기지구기 수초관, **교교**: 교련청 교련관, **청별**: 별기위청 별장, **청백**: 별기위청 백총, **위정**: 별기위청 정, **위영**: 별기위청 영, **위하**: 별기위청 영하, **작별**: 작대청 별장, **작백**: 작대청 백총, **수별**: 수첩청 별장, **수백**: 수첩청 백총, **집**: 집사청 집사, **운행**: 운도당 행수집사, **운기**: 운도당 기지구관, **운패**: 운도당 기패관, **부**: 부청의 상급향리.

처 총독부의 경무관과 사무관을 역임하고 중추원 참의로 임명되었다. 그 아들 鎔書는 해방 후 한국은행의 초대 총재가 되었다.<sup>26)</sup> 그리고 동명 학교 교장 具澤龍의 차남 然浩는 한말에 기장 군수를 역임하여 영세불 망비가 남아 있다.<sup>27)</sup>

〈표 3〉 창원 구씨 가문도



\* 출전: 『昌原具氏世譜』 1, 1981. 이훈상 손숙경, 앞의 책, 2009.

26) 金炳攝, 앞 책, 270쪽.

27) 金炳攝, 앞 책, 267~268쪽.

## 2. 종족화와 친족구성

최근에 출판된 『창원구씨 동래문중지』에는 17, 18세기에 이 가문에서 작성한 가승 1점과 가첩 3점의 사진이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승의 사진에는 같이 수록된 3점의 가첩 사진들과는 달리 그 내용의 일부만 담겨져 있다. 비록 그 전체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첫 부분에 작성자 선조들의 호칭과 성명 또는 성씨 및 기일과 장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선조들의 호칭에 현재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주목된다. 판독 가능한 부분 중 해당 사항을 기재되어 있는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曾外高祖 金淑貞 十二月 十七日  
妻  
曾祖 金仲傑 十一月 二十二日  
妻 鄭氏  
外曾高祖 宋○熙 七月 三日 前 東臺葬

外曾高祖 成均第一生員 宋承緒 二月 二十八日 五論臺葬  
妻 氏 十二月 十五日  
外曾祖 宋師廉 十一月 十三日 五論臺葬  
妻 李氏 十二月 二十七日  
妾 千氏 十二月 十五日 五論臺葬  
外祖 宋居仁 四月初五日  
妻 梁氏 八月 十二日 ○里峴葬  
後妻 文氏 正月 十五日  
外外祖 梁瑞  
妻 朴氏

養祖父 鄭○鰲 十월 十七日

妻 宋氏 二月 十六日

曾外外祖 鄭義風

妻 金氏<sup>28)</sup>

위에 인용한 선조의 호칭들 중 曾外高祖, 外曾高祖, 外外祖, 曾外外祖 등은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들인데 특히 外外祖와 曾外外祖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sup>29)</sup>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기재된 曾祖 金仲傑의 경우 이 가계의 성씨인 구씨가 아닌 김씨여서 “외”란 글자가 실수로 결락된 것인지의 여부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당시 이 가계의 친족구성이 다변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 바로 다음에 ‘同生姪子等四籌’라는 제명 아래 작성자의 형제로 추정되는 仁祿 仁立, 청도에 사는 외삼촌과 그 처의 생년, 기일, 장지 그리고 이들의 자식들과 子婦의 생년과 사주를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仁祿 己酉[1609] 四月 二十三日 戌時生 甲申年[1644] 五月 十四日 年三十五 仙 葬 海雲○

妻 鄭氏 辛亥[1611] 十月 十三日 戌時生 年六十一 仙 六月 十五日 仙 葬 海雲○

子 汝溟 戊寅[1638] 十一月 十四日 戌時生 戊寅土 甲子金 ○○○

妻 朴氏 癸未[1643] 四月 二十日 戌時生 壬申金 庚戌金 運傳七七

仁立 壬子[1612] 十月 二十七日 子時生 年八十三 甲戌[1694] 正月 十四日 仙 葬 ○○谷

壬子木 辛亥金 丁亥土 庚子土 壬人金 運六六 大定一九八五

28) 金炳攝, 앞의 책, 2012, 189쪽.

29) 外外祖는 外外曾祖 즉 母의 外祖를, 曾外外祖는 曾外高祖 즉 祖父의 外祖를 지칭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妻 丙辰生 十月日時 壬子[1672] 二月初八日 仙葬于 沙川後山  
 清道 外三寸 八月二十六日 妻 六月二十四日<sup>30)</sup>

이를 통해 이 가승의 작성자가 仁祿·仁立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족보에 의하면 이들은 사천면 동계에 참여한 구영취의 아들 應震과 그 처 은진 송씨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應震과 그 처 은진 송씨에게는 장남 仁祿, 차남 仁立, 삼남 仁甲, 사남 仁好, 오남 仁發 등 5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 중 장남 仁祿과 차남 仁立은 작성 당시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작성자는 삼남 仁甲, 사남 仁好, 오남 仁發 중 한 사람일 것이다.

또 이 부분에 바로 이어서 “庚戌[1670] 五月 十三日 輪回忌祭次忌案”라는 제명으로 윤희봉사의 분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옮겨 오면 다음과 같다.

父主 五月初七日  
 祖母主 金氏 十二月二十四日  
 外外曾祖母主 千氏 十二月十五日  
 母主 生辰日 十二月初六日  
 ----- 汝溟  
 母主 四月二十三日  
 外祖父主 四月初五日  
 曾祖母主 鄭氏 十二月十四日  
 外曾祖父主 十一月十三日  
 ----- 仁立 汝軾  
 祖父主 12月初六日

30) 金炳攝, 앞의 책, 189쪽. 인용문 중 간지 다음의 [ ]와 서기 연도는 연구자가 첨입한 것이며, 이후의 인용문에서도 마찬가지임.

外祖母主 梁氏 八月 十二日

曾祖母主 鄭氏 十二月 十四日

外曾祖父主 十一月 十三日

----- 仁好 仁發

위의 내용에 의하면 이 가계의 제사를 돌아가며 맡는 이는 應震의 차남 仁立과 사남 仁好 및 오남 仁發 그리고 장남 仁祿의 아들 汝冥(죽보명은 汝宜)과 삼남 仁甲의 장남 汝軾 등 모두 5명으로 應震의 5형제가 각기 자신들의 몫을 나누어 맡아 자신이 지내거나 그렇지 못하면 그 아들 중 1명이 그 부친을 대신해 맡았다. 이러한 분담을 정한 것이 경술년인데 앞서 인용한 ‘同生姪子等四簫’의 내용에 의하면 이 분담에 참여한 仁立이 갑술년 즉 1694년에 사망했으므로 이 경술년은 1670년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분담한 제사의 대상이 부변에서는 이들의 부모와 조부모 및 증조부 내외이며, 모변에서는 외조부 내외와 외증조부 내외 및 외외증조모인데 특이한 것은 타계한 모친의 생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 가승과 함께 수록된 3점의 가첩들은 모두 18세기 전반기에 작성된 것들인데 부변 중심의 친족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먼저 가첩A<sup>31)</sup>는 고조 應震으로부터 증조 仁甲과 부 承重의 내외 생일과 기일 다음에 외조 李尙濫 내외와 외숙의 기일을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남인 命昌과 그 처 및 자식들의 생년과 기일을 기재하였다. 또 차남 命健과 그 처 및 아들 載禧의 생일을 적고 그 다음에는 삼남 命碩과 그 처 및 자식들의 생일이나 기일 등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載禧外家’란 제명 다음에 조부의 기일과 장지, 조모의 생일과 기일 및 장지, 삼촌과 숙모의 기일을 적어 놓았는데 이로 보아 이

31) 앞의 책, 191~193쪽.

들은 載禧의 외조부와 외조모 및 외삼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가첩A의 작성자는 載禧의 부친인 承重의 차남 命健(계유 1693년~기축1769년)으로 추정된다.

또 가첩B<sup>32)</sup>는 증조부 仁甲과 조부 汶元(족보명은 汝元)의 내외 및 부모의 생일과 기일 그리고 처부모와 처남의 기일을 기록한 다음 장남 命昌의 처와 자식들의 기일 또는 생일을 적은 후 같은 방법으로 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으므로 이 가첩B는 承重의 장남 命昌(임술1682년~기미1739년)이 최초 작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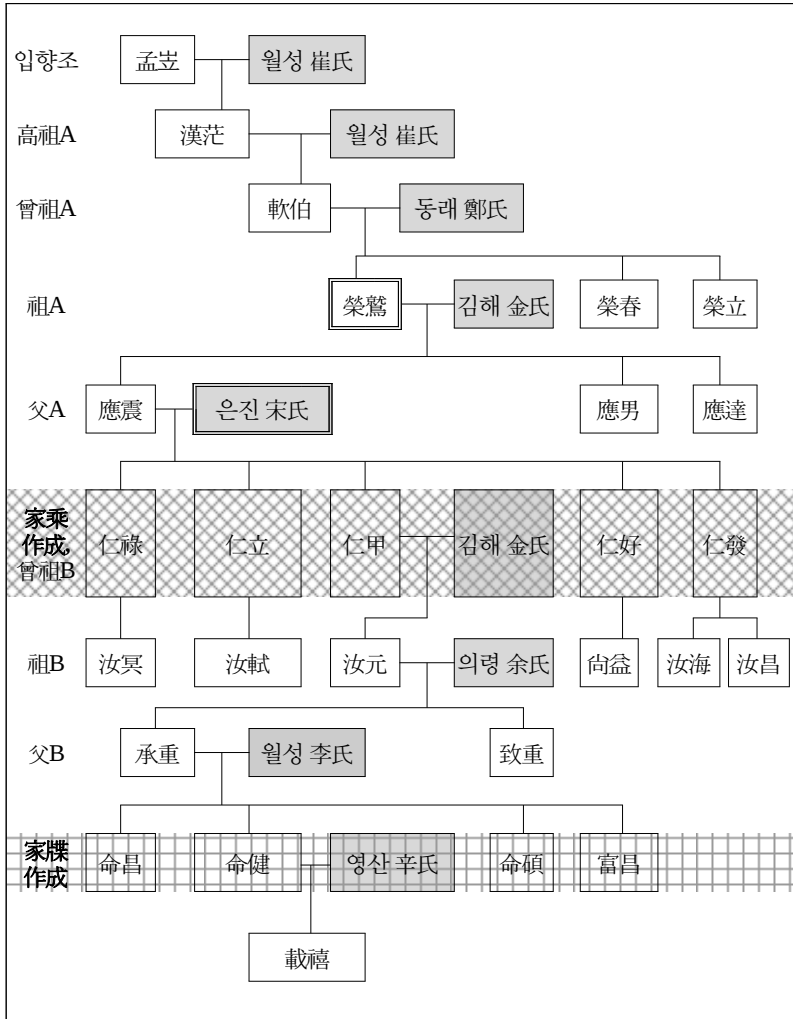
가첩C<sup>33)</sup>도 증조부 仁甲으로부터 부모와 처부모 및 장남 命昌을 비롯한 그 형제자매들의 생일 또는 기일을 기재해 놓았는데 이 역시 최초 작성자는 가첩B를 최초 작성한 命昌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앞서 보았던 가승이 작성된 17세기 말까지도 존속했던 다변적인 친족구성이 세 세대도 채 거치지 않은 18세기 초에 부변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었다. 이러한 친족구성의 변화는 양반이 아닌 이족가문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렇듯 17세기 말까지 존속했던 다변적인 친족 구성은 창원 구씨 가문 내부의 분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주요 배경의 하나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변적 친족 구성은 다른 가계들의 분화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부계 친족 집단 내부에서도 어떤 가계는 그 후손들이 사회적 성취를 크게 이루는 반면 또 어떤 가계에서는 사회적 성취를 전혀 이루지 못해 일반 민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부계 친족을 형성하기 이전 이들 가계가 가지고 있던 다변적 친족관계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32) 앞의 책, 194~195쪽.

33) 앞의 책, 196~197쪽.

〈표 4〉 창원 구씨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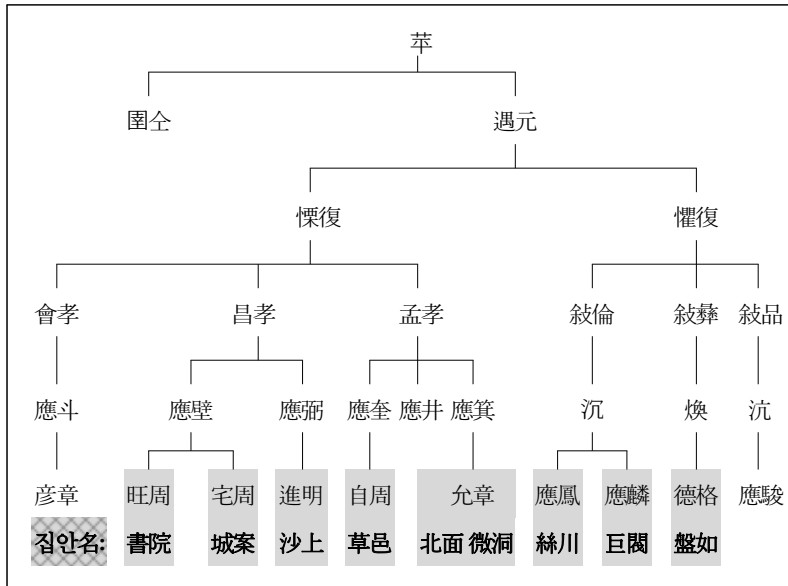
\* 출처: 『昌原具氏世譜』 1, 1981. 이훈상 손숙경, 앞의 책, 2009.

## Ⅳ. 그 외 동계 참여자들의 가문

### 1. 남평 문씨의 지역적 분포와 이들의 가문

현존하는 사천면 동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1612년에 작성된 것인데 여기에 등재된 이는 모두 47명이다. 남평 문씨 가계의 인물로서는 文彦壽<sup>34)</sup>, 文彦海 형제가 여기에 참여했다. 이렇듯 남평 문씨는 17세기 초기 사천면 동계 결성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동계에 참여해 온 주요 성씨 중 하나이다.

〈표 5〉 남평 문씨 가문도



\* 사하집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사상집에 포함시켰음.

\* 출전: 『南平文氏大同繼承譜』, 南平文氏親睦會, 1961, 3쪽.

34) 동안에는 文彦壽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들의 족보에는 文彦守로 표기되어 있다.

남평 문씨는 사천면뿐 아니라 동래부 곳곳에 널리 거주해 온 유력 성씨이다. 이들의 동래 입향조는 문익점의 손자인 文萃인데 그는 1406년(태종 6)에 종질인 文可學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화를 당하자 세거지인 경상남도 단성을 떠나 사천에 머물다가 1440년(세종 22)에 차남 文遇元을 데리고 남해안을 따라 동래로 들어와 현재의 부산진구 초읍동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sup>35)</sup> 이후 이들은 서원, 성안, 사상, 초읍, 북면 미동, 사천, 거벌, 반여 등 8개 집안을 <표 5>와 같이 형성해 왔는데 이들의 가계 분화 양상과 아울러 사천면 동계에 참여해 온 사상집의 위상을 파악해 보려 한다.

먼저 향청과 서원 및 향교의 직임을 맡았던 이들을 각 집안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36)</sup>

#### 가. 서원집 :

|   | 향청                                           | 향안 | 서원     | 향교                | 계  |
|---|----------------------------------------------|----|--------|-------------------|----|
|   | 聖規(영조연간) 23세<br>益瑞(정조연간) 24세<br>東曄(순조연간) 26세 | .  | 以仁 20세 | 成鳳(장외, 1888년) 28세 |    |
| 계 | 3명                                           | 0명 | 1명     | 1명                | 5명 |

#### 나. 성안집

|   | 향청 | 향안 | 서원 | 향교 | 계  |
|---|----|----|----|----|----|
|   |    |    |    |    |    |
| 계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35) 주영택, 「남평 문씨」, 인터넷 웹사이트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19340](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19340).

36) 출전: 『東萊鄉廳先生案拾遺錄』, 『東萊鄉校誌』, 東萊鄉校, 2010, 490~505쪽; 『東萊鄉校 經任錄』, 위의 책, 521~539쪽; 『安樂書院 經任錄』, 위의 책, 767~770쪽. 「남평문씨 인터넷 대동보」, <http://www.moonsi.com>.

다. 사상집

|   | 향청               | 향안 | 서원 | 향교               | 계  |
|---|------------------|----|----|------------------|----|
|   | 鳳來(별감,1707년) 23세 |    |    | 敬魯(교장,1886년) 26세 |    |
| 계 | 1명               | 0명 | 0명 | 1명               | 2명 |

라. 초읍집

|   | 향청               | 향안            | 서원 | 향교                                   | 계  |
|---|------------------|---------------|----|--------------------------------------|----|
|   | 道明(별감,1617년) 21세 | 道明(1610년) 21세 |    | 理明(당장,1635년) 21세<br>進學(접유사,1901년)30세 |    |
| 계 | 1명               | 1명            | 0명 | 2명                                   | 4명 |

마. 북면 미동집

|   | 향청                                                                                                                                                                                                                                                                                                                  | 향안                                                                                                 | 서원                                                                                                        | 향교                                                                                                                                                                                                                                                                                                                          | 계   |
|---|---------------------------------------------------------------------------------------------------------------------------------------------------------------------------------------------------------------------------------------------------------------------------------------------------------------------|----------------------------------------------------------------------------------------------------|-----------------------------------------------------------------------------------------------------------|-----------------------------------------------------------------------------------------------------------------------------------------------------------------------------------------------------------------------------------------------------------------------------------------------------------------------------|-----|
|   | 澤龍(광해연간) 18세<br>汝郁(별감,1640년) 19세<br>是郁(별감,1651년) 19세<br>聖昌(별감,1695년) 21세<br>世南(별감,1735년) 22세<br>世欽(영조연간) 22세<br>命才(좌수,1770년) 23세<br>命顯(좌수,1788년) 23세<br>命仁(영조연간) 23세<br>道彬(좌수,1859년) 24세<br>思彬(좌수,1828년) 24세<br>斗彬(순조연간) 24세<br>萬彬(철종연간) 24세<br>秉禧(1884·1916년) 25세<br>有鳳(좌수,1890년) 26세<br>宅魯(고종연간)(좌수,<br>1859) 27세 | 澤龍(1610년) 18세<br>汝郁(1621년) 19세<br>是郁(1643년) 19세<br>尙奎(1728년) 20세<br>尙斗(1738년) 20세<br>尙璧(1738년) 20세 | 思彬 24세<br>後成 24세<br>致五 25세<br>道彬 24세<br>秉禧 25세<br>應魯 27세<br>祐鳳 26세<br>有鳳 26세<br>秉善 ?세<br>聲駿 28세<br>啓斗 28세 | 命才(장의,1744년) 23세<br>命顯(재장,1783년) 23세<br>思彬(장의,1783년)(도유사,<br>1813년) 24세<br>秉禧(훈장,1887·1888년)<br>(도유사,1889년)(별임,1891년)<br>(교장, 1900년) 25세<br>有鳳(훈장,1895·1885·1897<br>·1901·1903년) 26세<br>致鳳(도유사,1840년) 26세<br>亨魯(장의,1902년) 27세<br>斗洪(접유사,1891년) 28세<br>丕憲(장의,1895년) 28세<br>聲駿(훈장,1904)(교장,<br>1895년) 28세<br>啓斗(교장,1905년) 28세 |     |
| 계 | 16명                                                                                                                                                                                                                                                                                                                 | 6명                                                                                                 | 11명                                                                                                       | 11명                                                                                                                                                                                                                                                                                                                         | 33명 |

## 바. 사천집

|   | 향청           | 향안            | 서원 | 향교               | 계  |
|---|--------------|---------------|----|------------------|----|
|   | 夏鼎(광해연간) 19세 | 夏鼎(1610년) 19세 |    | 周鳳(장의,1886년) 26세 |    |
| 계 | 1명           | 1명            | 0명 | 1명               | 3명 |

## 사. 거벌집

|   | 향청                                                                                                                                                                | 향안                                             | 서원               | 향교                                                                                                                                                                                                                                                                          | 계   |
|---|-------------------------------------------------------------------------------------------------------------------------------------------------------------------|------------------------------------------------|------------------|-----------------------------------------------------------------------------------------------------------------------------------------------------------------------------------------------------------------------------------------------------------------------------|-----|
|   | 翰雄(숙종연간) 21세<br>翰一(숙종연간) 21세<br>聖中(영조연간) 22세<br>命肇(정조연간) 23세<br>命啓(정조연간) 23세<br>思碩(순조연간) 24세<br>起周(좌수,1840년) 25세<br>起廷(철종연간) 25세<br>奎漢(철종연간) 26세<br>奎滢(1904년) 26세 | 世輝(1610년) 18세<br>有紀(1728년) 20세<br>有績(1738) 20세 | 應宇 27세<br>奎斗 26세 | 有紀(도유사,1654년) 20세<br>有績(도유사,1666년)(재임, 1666년) 20세<br>命榮(도유사,1773) 23세<br>命啓(도유사,1788년) 23세<br>思碩(도유사,1801년) 24세<br>慶郁(도유사,1900년) 25세<br>景郁(장의,1880년) 25세<br>奎獻(장의,1883년) 26세<br>應宇(교장,1894년) 27세<br>瓚宇(도유사,1885년)(훈장, 1897-1898년) 27세<br>彩宇(장의,1874년) 27세<br>學洙(장의,1898) ?세 |     |
| 계 | 10명                                                                                                                                                               | 3명                                             | 2명               | 12명                                                                                                                                                                                                                                                                         | 27명 |

## 아. 반여집

|   | 향청                                                                                                                      | 향안                                                               | 서원                                   | 향교                                                                                                                                                         | 계   |
|---|-------------------------------------------------------------------------------------------------------------------------|------------------------------------------------------------------|--------------------------------------|------------------------------------------------------------------------------------------------------------------------------------------------------------|-----|
|   | 克敦(영조연간) 21세<br>允明(별감,1800년) 24세<br>禹海(별감,1818년) ?세<br>秉憲(좌수,1856년) 25세<br>景德(철종연간) 26세<br>奕謨(고종연간) 26세<br>起鉉(고종연간) 27세 | 成績(1643년) 20세<br>啓昌(1643년) 19세<br>啓達(1643년) 19세<br>啓禮(1728년) 19세 | 東純 22세<br>權演 27세<br>斗演 28세<br>性演 27세 | 啓禮(도유사,1666) 19세<br>光漢(훈장,1876년) 26세<br>鑄演(점유사,1879년) 27세<br>斗演(점유사,1890년)<br>(공사원, 1897) 27세<br>棟鉉(점유사,1903년) 28세<br>得龍(장의,1885년) 30세<br>克明(재임,1666년) 21세 |     |
| 계 | 7명                                                                                                                      | 4명                                                               | 4명                                   | 7명                                                                                                                                                         | 18명 |

자. 집안 미상

|   | 향청                                                                                                                                                                                                                             | 향안                                                                                      | 서원                             | 향교                                                                                                                                                                                                                                                                                                      | 계   |
|---|--------------------------------------------------------------------------------------------------------------------------------------------------------------------------------------------------------------------------------|-----------------------------------------------------------------------------------------|--------------------------------|---------------------------------------------------------------------------------------------------------------------------------------------------------------------------------------------------------------------------------------------------------------------------------------------------------|-----|
|   | 啓後(별감,1640년)<br>(좌수,1645·1646년)<br>斗心(별감 1701)<br>克章(숙종연간)<br>再煥(숙종연간)<br>世桓(영조연간)<br>重緯(영조연간)<br>翼心(정조연간)<br>周楸(정조연간)<br>贊楸(순조연간)<br>禹絢(철종연간)<br>應魯(철종연간)<br>祖範(철종연간)<br>祖憲(철종연간)<br>涼衍(고종연간)<br>進烈(별감,1856년)<br>翊祥(별감,1856년) | 時謙(1610년)<br>起宗(1610년)<br>啓後(1621년)<br>以質(1643년)<br>奉日(1643년)<br>尙楸(1643년)<br>尙心(1728년) | 奕謨 26세<br>興祿<br>基宇<br>興善<br>龍湜 | 弘亮(재장,1634년)<br>啓稷(전곡,1666년)<br>翼心(재장,1763년)<br>允貞(재장,1784년)<br>致憲(장의,1815년)<br>鳳元(장의,1876년)<br>永晉(점유사,1880년)<br>大魯(장의,1887년)<br>永錫(장의,1887년)<br>泰演(교장,1881년)<br>(훈장,1903년)<br>彩根(장의,1888년)<br>東錫(교장,1892년)<br>秉奎(장의,1893년)<br>科生(장의,1894년)<br>勳演(점유사,1897년)<br>宇周(점유사,1899년)<br>稔洙(장의,1905년)<br>昌用(장의) |     |
| 계 | 16명                                                                                                                                                                                                                            | 7명                                                                                      | 5명                             | 18명                                                                                                                                                                                                                                                                                                     | 46명 |

이어서 무청선생안이나 부청선생안에 등재된 무임과 향리들도 집안 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37)</sup>

가. 서원집

|   | 최상급 무임(세수) | 상급 무임(세수)     | 중·하급 무임(세수) | 향리(세수) | 계  |
|---|------------|---------------|-------------|--------|----|
|   |            | 重興(22) 聖敎(23) | 重昌(22)      |        |    |
| 계 | 0명         | 2명            | 1명          | 0명     | 3명 |

37)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장관청의 중군을 최상급 무임으로, 상급 무임은 장관청의 천총과 파총 및 각 무청의 수장과 집사청의 집사로, 그 나머지 무임들은 모두 중·하급으로 분류하였다. 출전: 이훈상·손숙경, 앞 책, 2009. 『咸安趙氏東隱公(南溪公后)派譜』, 2008.

## 나. 성안집

|   | 최상급 무임(세수)              | 상급 무임(세수) | 중·하급 무임(세수)                    | 향리(세수)                                          | 계   |
|---|-------------------------|-----------|--------------------------------|-------------------------------------------------|-----|
|   | 進烈(25) 進亨(25)<br>喜潏(27) | 景豹(24)    | 繼質(21) 重明(22)<br>重章(22) 聖郁(23) | 景豹(24) 進烈(25)<br>德潏(27) 庠潏(27)<br>喜潏(27) 禎喬(28) |     |
| 계 | 3명                      | 1명        | 4명                             | 6명                                              | 14명 |

## 다. 사상집

|   | 최상급 무임(세수) | 상급 무임(세수) | 중·하급 무임(세수)                                                                                     | 향리(세수) | 계   |
|---|------------|-----------|-------------------------------------------------------------------------------------------------|--------|-----|
|   |            | 仁表(25)    | 萬益(21) 而紀(21)<br>萬貴(22) 萬章(22)<br>命章(22) 泰章(22)<br>聖元(23) 一興(23)<br>得守(25) 敬潏(25)<br>斗萬(22/25?) |        |     |
| 계 | 0명         | 1명        | 11명                                                                                             | 0명     | 12명 |

## 라. 초읍집

|   | 최상급 무임(세수) | 상급 무임(세수) | 중·하급 무임(세수) | 향리(세수) | 계  |
|---|------------|-----------|-------------|--------|----|
|   |            |           |             |        |    |
| 계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 마. 북면 미동집

|   | 최상급 무임(세수)                                      | 상급 무임(세수)                      | 중·하급 무임(세수)                    | 향리(세수) | 계   |
|---|-------------------------------------------------|--------------------------------|--------------------------------|--------|-----|
|   | 命經(23) 命仁(23)<br>命才(23) 以彬(24)<br>秉喜(25) 錫五(25) | 命紘(23) 萬彬(24)<br>夢極(25) 德老(28) | 以郁(19) 尙星(20)<br>道昌(21) 容淳(30) |        |     |
| 계 | 6명                                              | 4명                             | 4명                             | 0명     | 14명 |

바. 사천집

|   | 최상급 무임(세수) | 상급 무임(세수)               | 중·하급 무임(세수)   | 향리(세수) | 계  |
|---|------------|-------------------------|---------------|--------|----|
|   |            | 克徵(22) 汝徵(22)<br>有徵(22) | 致徵(22) 必光(23) | 達壽(28) |    |
| 계 | 0명         | 3명                      | 2명            | 1명     | 6명 |

사. 거벌집

|   | 최상급 무임(세수)                               | 상급 무임(세수)                      | 중·하급 무임(세수)                    | 향리(세수) | 계   |
|---|------------------------------------------|--------------------------------|--------------------------------|--------|-----|
|   | 有紀(20) 翰伯(21)<br>翰一(21) 思顯(24)<br>翊祥(27) | 道徵(22) 時盛(22)<br>在博(22) 致一(27) | 日碩(21) 聖瑞(22)<br>希望(22) 道祥(27) |        |     |
| 계 | 5명                                       | 4명                             | 4명                             | 0명     | 13명 |

아. 반여집

|   | 최상급 무임(세수) | 상급 무임(세수)                      | 중·하급 무임(세수) | 향리(세수) | 계  |
|---|------------|--------------------------------|-------------|--------|----|
|   | 允明(24)     | 東寶(22) 東純(22)<br>命憲(25) 在演(27) |             |        |    |
| 계 | 1명         | 4명                             | 0명          | 0명     | 5명 |

자. 집안 미상

|  | 최상급 무임(세수)                                | 상급 무임(세수)                                                                                                                                          | 중·하급 무임(세수)                                                                                                                                                                                                                                                                      | 향리(세수)                  | 계 |
|--|-------------------------------------------|----------------------------------------------------------------------------------------------------------------------------------------------------|----------------------------------------------------------------------------------------------------------------------------------------------------------------------------------------------------------------------------------------------------------------------------------|-------------------------|---|
|  | 孟憲(?)<br>範衡(?)<br>世恒(?)<br>元才(?)<br>有聲(?) | 克章(?) 起周(?)<br>道貞(?) 道華(?)<br>得弘(?) 良豹(?)<br>命敷(?) 百昌(?)<br>秉斗(?) 尙顯(?)<br>聖老(?) 成豹(?)<br>時昌(?) 英錫(?)<br>禮肇(?) 元亨(?)<br>有賢(?) 義逸(?)<br>翊道(?) 翼鳴(?) | 幹東(?) 季甲(?) 光得(?) 貴興(?) 克大(?)<br>農三(?) 德中(?) 道康(?) 道三(?) 道夏(?)<br>道恒(?) 萬永(?)<br>萬重(?) 萬洽(?) 孟章(?) 命興(?) 凡龍(?)<br>尙重(?) 碩奉(?) 錫逢(?) 碩敷(?) 善義(?)<br>善興(?) 聖夏(?)<br>聖璜(?) 成璜(?) 世榮(?) 世榮(?) 壽興(?)<br>順錫(?) 時道(?) 時允(?) 時靖(?) 時宗(?)<br>時重(?) 時華(?)<br>始興(?) 愛傑(?) 良豹(?) 龍章(?) 龍海(?) | 錫容(?)<br>錫麒(?)<br>章潞(?) |   |

|   |    |                                                                                                                         |                                                                                                                                              |    |      |
|---|----|-------------------------------------------------------------------------------------------------------------------------|----------------------------------------------------------------------------------------------------------------------------------------------|----|------|
|   |    | 麟錫(?) 祖範(?)<br>重元(?) 進浩(?)<br>昌澈(?) 泰明(?)<br>弼弘(?) 憲周(?)<br>絢斗(?) 弘基(?)<br>繼漢(?) 命龍(23/27?)<br>尙奎(20/25?)<br>繼宗(21/24?) | 有輝(?) 裕輝(?) 李甲(?) 以亮(?) 而重(?)<br>益昌(?) 逸命(?)<br>弼光(?) 弼學(?) 必弘(?) 漢貴(?) 翰貴(?)<br>漢世(?) 翰世(?) 漢貞(?) 漢枝(?) 漢眞(?)<br>漢興(?) 翰興(?)<br>弘憲(?) 禧甲(?) |    |      |
| 계 | 5명 | 34명                                                                                                                     | 62명                                                                                                                                          | 3명 | 101명 |

이상의 내용들을 총괄해서 정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이를 통해 보면 조선후기에 동래부에 거주했던 남평 문씨 가문은 동래 지역의 유력한 양반 성씨들 중 하나였음이 확인된다. 성안집을 제외한 모든 집안에서 향청이나 서원 및 향교의 직임을 맡았던 이들을 최소 두 명 이상 배출했는데 특히 북면 미동집과 거벌집 및 반여집의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여기서 제외된 성안집은 양반들이 독점했던 이러한 직임

<표 24> 남평 문씨 가문의 각종 직임자들

| 직임<br>집안 | 향청 | 향안 | 서원 | 향교 | 소계<br>(명) | 최상급<br>무임 | 상급<br>무임 | 중·하급<br>무임 | 향리 | 소계<br>(명) | 총계<br>(명) |
|----------|----|----|----|----|-----------|-----------|----------|------------|----|-----------|-----------|
| 서원       | 3  | 0  | 1  | 1  | 5         | 0         | 2        | 1          | 0  | 3         | 8         |
| 성안       | 0  | 0  | 0  | 0  | 0         | 3         | 1        | 4          | 6  | 14        | 14        |
| 사상       | 1  | 0  | 0  | 1  | 2         | 0         | 1        | 11         | 0  | 12        | 14        |
| 초읍       | 1  | 1  | 0  | 2  | 4         | 0         | 0        | 0          | 0  | 0         | 4         |
| 북면<br>미동 | 16 | 6  | 11 | 11 | 44        | 6         | 4        | 4          | 0  | 14        | 58        |
| 사천       | 1  | 1  | 0  | 1  | 3         | 0         | 3        | 2          | 1  | 6         | 9         |
| 거벌       | 10 | 3  | 2  | 12 | 27        | 5         | 4        | 4          | 0  | 13        | 40        |
| 반여       | 7  | 4  | 4  | 7  | 22        | 1         | 4        | 0          | 0  | 5         | 27        |
| 미상       | 16 | 7  | 5  | 18 | 46        | 5         | 34       | 62         | 3  | 104       | 150       |
| 계(명)     | 55 | 22 | 23 | 53 | 153       | 20        | 53       | 88         | 10 | 171       | 324       |

대신 향리나 무임직을 맡았는데 비록 19세기 이후에 들어와서의 일이지만 그 동안 양반들이 차지했던 동래부 최고위 무임직인 중군을 무려 3명이나 배출했다. 그리고 임란 직후에 사천면 동계 설립에 참여했던 사상집 역시 향청이나 향교의 직임을 맡은 이들을 각기 1명씩 배출하여 양반 가계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수가 다른 집안들에 비해 적고 중·하급의 무임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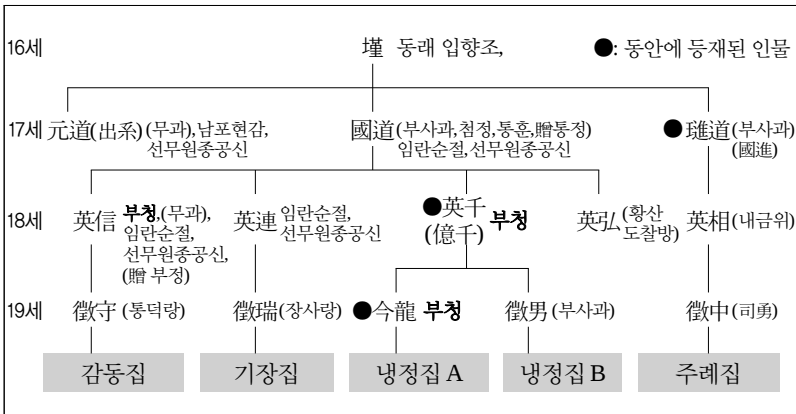
## 2. 함안 조씨의 가계 분화

1612년과 1623년에 작성된 사천 동안에는 趙英千 1인만 입록되었으나 1629년에 그의 아들 趙今龍과 숙부 趙璉道가 함께 입록되어 현존하는 17세기 전반기 사천면 동안에 등재된 함안 조씨는 모두 3명이다.<sup>38)</sup>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漁溪 趙旅의 후손인 이들은 자신들의 본관지에서 오랫동안 세거해 온 명망가의 후손들이다. 이들의 입향조는 조영천의 조부인 趙堉인데 그는 적서 분별의 문제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복형제들의 눈을 피해 삼랑진을 거쳐 사천면으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그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맏아들인 趙元道を 형에게 출계시켜 차남 趙國道와 삼남 조진도의 후손들이 사천면을 비롯한 동래 지역에 세거해 오고 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입향조 조근의 아들 3형제와 차남 조국도의 아들 셋이 모두 전쟁에 참여하였다. 이 집안은 부녀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성들이 모두 전쟁에 참여한 셈이다. 이들이 이렇듯 적극 전쟁에 참여하였던 까닭은 동래 『부청선생안』에 趙英信과 趙英千 및 그 아들 趙今龍의 성명이 등재되어 있어 입향조 조근과 그 나머지 아들과 손자들 역시 향리나 무임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선무원종공신 구영취의 경우도 이와 같은

38) 조영천은 趙億千, 조진도는 趙國進이란 이름으로 동안에 입록되어 있다.

경우일 것이다. 전사한, 조근의 맏아들 조원도와 차남 조국도 및 손자 조영신, 조영련은 전후에 선무원종공신에 봉해졌다. 그리고 살아 돌아온 삼남 조진도와 손자 조영천이 조영천의 장남 조금룡과 함께 동계에 참여해 이들 三代의 성명이 동안에 입록되었다.

〈표 25〉 함안조씨 가문도



출전: 진상원, 앞의 글, 2015, 29~55쪽.

이후 이들의 가문은 입향조 조근의 손자 세대를 기준으로 감동집과 기장집, 냉정집, 주례집 등 크게 4개의 집안으로 나뉘어졌는데 이들의 가계분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가문의 종가인 감동집은 조국도의 장남인 趙英信의 후손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란에 전사한 조영신은 선무원종공신에 봉해졌는데 그의 성명이 『부청선생안』에 등재되어 있어 향리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집안은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상급과 중하급의 무임을 다수 배출하였다. 그러나 조영신이 등재되었던 『부청선생안』에 이 집안 인물들의 성명이 그 후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23세 趙益泰의 경우 이들의 족보에는 최상급 무임인 중군

을 역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무청선생안에서는 그 바로 아래의 상급무임인 천총과 파총을 역임한 사실만 확인된다. 그리고 24세 조정화는 1784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이때 받은 교지와 파총으로 차출된 차첩이 전해지고 있다.<sup>39)</sup> 또 그의 아들 25세 趙潤玉의 풍헌 차출 차첩도 남아 있어<sup>40)</sup> 사천면의 풍헌도 이 집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함안 조씨 감동집의 직임자와 그 직임들

| 세수<br>출전         | 20세                                                                                                                           | 21세                                                                                                           | 22세                                                                                                                                                | 23세                                                                                                                                               |
|------------------|-------------------------------------------------------------------------------------------------------------------------------|---------------------------------------------------------------------------------------------------------------|----------------------------------------------------------------------------------------------------------------------------------------------------|---------------------------------------------------------------------------------------------------------------------------------------------------|
| 족보<br>호적 등       | 忠寬: (참봉), (증 통정)<br>忠善: (무과), (부사과)<br>忠得: (참봉)                                                                               | 大札: (사직승), 통정<br>大節: 증 통정<br>時遠: (부사과)<br>時華: (부사과)                                                           | 完璧: (무과), (만호), (절충<br>첨사), (증 가의대부<br>동지)<br>寬璧: 무역감, (검사복,<br>奉事)<br>正伯: 병절교위 부사과<br>琴碩: (증 어모장군 판관)<br>富碩: (증 가선)<br>順伯: (부사과)<br>聖伯: (창신교위 사과) | 益泰: (통정 중군), (가선),<br>겸사복<br>益三: (만호), 좌수영<br>기패관, (증 가선 첨지)<br>益鎭: (참봉)<br>孟聖: (창신교위 사과)<br>允興: (증 동훈 군자감정)<br>允用: (부호군)<br>龍載: (봉사)<br>暉管: (참봉) |
| 무청,<br>부청<br>선생안 |                                                                                                                               |                                                                                                               | 完璧: 위하?<br>寬璧: 별명, 교교, 위영,<br>수백<br>琴碩: 교교, 위하<br>順伯: 장초, 교교                                                                                       | 益泰: 장천, 장파, 청백,<br>위정, 장초, 별대, 위하<br>龍載: 별대, 교교, 위하<br>暉管: 위하, 장초                                                                                 |
| 세수<br>출전         | 24세                                                                                                                           | 25세                                                                                                           | 26세                                                                                                                                                | 비고                                                                                                                                                |
| 족보<br>호적 등       | 景和: 무과<br>(守城營將), (통정)<br>景文: (봉사)<br>景仁: (어모장군 판관)<br>景興: (어모장군 판관)<br>景行: (동훈 司直)<br>景碩: (참봉)<br>景大: (壽職 통정)<br>景允: (통정 파총) | 潤玉: 풍헌, 별군관,<br>(통정 천총)<br>潤植: (통정 파총)<br>厚植: (봉사)<br>元植: 어모장군, 판관<br>文植: (참봉)<br>雲植: (통덕랑)<br>鎭植: (선략장군 부사과) | 性文: 量費錢殖利句官<br>(참봉) (구홀순관)<br>性昌: (인략서원 장의)<br>性和: (통정), (훈련원<br>주부)                                                                               |                                                                                                                                                   |

39) 이훈상·진상원, 앞의 책, 290~204쪽.

40) 이훈상·진상원, 위의 책, 205쪽.

|                  |                             |            |  |  |
|------------------|-----------------------------|------------|--|--|
|                  | 景敏(참봉)<br>景琦(참봉)<br>景信(부사과) |            |  |  |
| 무청,<br>부청<br>선생안 | 景和: 장파, 청백<br>景珍: 장초        | 潤玉: 장초, 수백 |  |  |

\* 『무청선생안』의 중군과 상급무임 및 부청선생안 등재는 질게 표기함.

\* 족보외의 곳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은 ( )로 표기함.

\* 출전: 이훈상 손숙경, 앞의 책, 2009. 『咸安趙氏東隱公(南溪公后)派譜』, 2008.

조국도의 차남 趙英連도 순절한 선무원종공신인데 그의 후손들이 기장으로 이거해 이 집안을 기장집으로 칭하고 있다. 21세 趙光龍이 향리와 하급무임을 역임한 것 외에는 달리 뚜렷한 직임을 가진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sup>41)</sup>

〈표 27〉 함안 조씨 기장집의 직임자와 그 직임들

| 출전            | 세수 | 20세     | 21세                                      | 22세       | 23세 |
|---------------|----|---------|------------------------------------------|-----------|-----|
| 족보<br>호적 등    |    |         |                                          |           |     |
| 무청, 부청<br>선생안 |    |         | 光龍: 부청, 장초, 교교                           |           |     |
| 출전            | 세수 | 24세     | 25세                                      | 26세       | 비고  |
| 족보<br>호적 등    |    |         | 暎植: (장사랑), (조봉대부)(판관)<br>光植: (승의랑), (참봉) | 性龍: (부호군) |     |
| 무청, 부청<br>선생안 |    | 完璧: 위하? |                                          |           |     |

\* 『무청선생안』의 중군과 상급무임 및 부청선생안의 직임은 질게 표기함.

\* 확인되지 않는 것은 ( )로 표기함.

\* 출전: 이훈상 손숙경, 앞의 책, 2009. 『咸安趙氏東隱公(南溪公后)派譜』, 2008.

41) 24세 趙完璧이 하급무임을 역임한 것으로 나오나 同名의 인물이 감동집에도 있어 불분명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조국도의 삼남 趙英千의 후손들을 냉정집이라 칭하는데 조영천은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생환하여 사천면 동계를 창립한 9인 중의 한 명으로 전해져 온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와 그의 장남 趙今龍의 성명이 부청선생안에 등재되어 있어 향리를 역임한 사실이 분명하다. 이 趙今龍의 후손들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세대마다 1명 이상의 향리를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23세 趙世安은 그 이전의 세대와 달리 향리뿐 아니라 무임직도 맡았는데 그 이후 25세와 26세의 인물들이 모두 그러하다. 이는 조선 말기로 내려오면서 향리의 자리가 부족해지자 이들이 무임직도 맡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표 28〉 함안 조씨 냉정집A의 직임자와 그 직임들

| 출전 | 세수            | 20세                            | 21세                                            | 22세                                     | 23세                                 |
|----|---------------|--------------------------------|------------------------------------------------|-----------------------------------------|-------------------------------------|
|    | 죽보<br>호적 등    |                                | 汝健: (통정)                                       |                                         | 之安: (절충)<br>世安: (통덕량)               |
|    | 무청, 부청<br>선생안 | 遇順: <b>부청</b>                  | 汝健: <b>부청</b>                                  | 碩昌: <b>부청</b>                           | 之安: <b>부청</b><br>世安: <b>부청</b> , 위하 |
| 출전 | 세수            | 24세                            | 25세                                            | 26세                                     | 비고                                  |
|    | 죽보<br>호적 등    | 元和: (증 통정)                     | 重呂: (가선)<br>有呂: (통정)<br>鼎呂: (증 통정 좌승지<br>겸 참찬) |                                         |                                     |
|    | 무청, 부청<br>선생안 | 得和: <b>부청</b><br>元和: <b>부청</b> | 重呂: <b>부청, 장천</b> , 별명<br>有呂: <b>부청</b> , 장초   | 龍鎭: <b>부청</b> , 작별<br>仁赫: <b>부청, 장천</b> |                                     |

\* 『무청선생안』의 중군과 상급무임 및 부청선생안의 직임은 짙게 표기함.  
\* 확인되지 않은 것은 ( )로 표기함.  
\* 출전: 이훈상·손숙경, 앞의 책, 2009. 『咸安趙氏東隱公(南溪公后)派譜』, 2008.

이렇게 향리를 주로 맡아 하였던 趙今龍의 후손들과는 달리 조영천의 차남 趙徵男과 그 후손들은 다음 <표 29>에서 보듯이 상급과 중하급의 무임들을 다수 배출하였다.

그리고 조국도의 사남 趙英弘은 황산도 찰방을 역임하여 양산으로 이거한 후 그 후손들과 연락이 끊어져 있다가 최근에 이 중 한 가계를 찾아내었다고 하는데 이는 이 갈래의 몰락을 의미한다.

〈표 29〉 함안 조씨 냉정집B의 직임자와 그 직임들

| 세수<br>출전     | 20세                           | 21세                                                        | 22세                                         | 23세                                                                       |
|--------------|-------------------------------|------------------------------------------------------------|---------------------------------------------|---------------------------------------------------------------------------|
| 족보<br>호적 등   | 繼贊: (참봉)                      | 而邦: (사용)<br>而萬: (봉사)                                       | 仁還: (부사과)<br>仁萬: (통정)<br>仁民: 통정<br>泰興: (참봉) | 世逸: (절충 부호군)<br>暗門監 통정<br>世亮: (통정 부호군)<br>南門監<br>之伯: (어모장군, 첨정)           |
| 무청,부청<br>선생안 |                               | 而萬: 장초,교교                                                  | 仁萬: 위하                                      | 世逸: <b>장파,수별</b><br>根安: 위하<br>世亮: <b>교기</b> ,수백,교교,<br>위하,장초,별별<br>世允: 교교 |
| 세수<br>출전     | 24세                           | 25세                                                        | 26세                                         | 비고                                                                        |
| 족보<br>호적 등   | 成泰: 겸사복<br>正泰: (무과),(부사과)     | 再福: (백충),(별군관)<br>德倫: (병방),(별군관),<br>(백충)<br>德載: (안락서원 재임) | 性岩: (별군관)                                   |                                                                           |
| 무청,부청<br>선생안 | 致文: 위하<br>厚泰: 수백,별별<br>正泰: 교교 | 再福: <b>장파</b> ,별별,청백<br>德倫: <b>장천,청별</b>                   |                                             |                                                                           |

\* 무청선생안의 중군과 상급무임 및 부청선생안의 직임은 질계 표기함.

\*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것은 ( )로 표기함.

\* 출전: 이훈상·손숙경, 앞의 책, 2009.; 『咸安趙氏東隱公(南溪公后)派譜』, 2008.

마지막으로 입향조의 삼남 趙璉道の 후손들을 주례집이라고 칭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진도는 임란에 참전하였다가 생환하여 전후에 사천면의 동계에 그의 조카 조영천의 아들 조금룡과 더불어 뒤늦게 입록되었던 인물이다. 이 집안도 다음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 세

대마다 상급과 중·하급의 무임을 다수 배출하였다.

〈표 30〉 함안 조씨 주례집의 직임자와 그 직임들

| 세수<br>출전      | 20세                                                   | 21세                                                 | 22세         | 23세                      |
|---------------|-------------------------------------------------------|-----------------------------------------------------|-------------|--------------------------|
| 족보<br>호적 등    | 起安: 판관, (무과)                                          | 渭澄: 사과<br>渭伯: (부사과)<br>渭榮: (壽職 가선 첨지)               | 連弘: 통정, 검사복 | 載泰: 검사복<br>得仁: (부사과)     |
| 무칭, 부칭<br>선생안 |                                                       |                                                     | 弼章: 교교      | 載實: 장초, 교교<br>鳳三: 장초, 위하 |
| 세수<br>출전      | 24세                                                   | 25세                                                 | 26세         | 비고                       |
| 족보<br>호적 등    | 尙輝: (사과), 별군관,<br>통정<br>尙漢: 참봉, 기패관                   | 聖國: 수성군관, 기패관,<br>별군관<br>光珪: (무과)<br>光植: (통훈대부), 파총 | 性元: (사용)    |                          |
| 무칭, 부칭<br>선생안 | 尙俊: <b>장파, 수별</b> ,<br>장초, 별대,<br>교교, 수백, 집<br>碩龍: 장초 | 敬秀: 장초, 수백<br>聖國: 장초                                | 性逸: 작백      |                          |

- \* 『무칭선생안』의 중군과 상급무임 및 부칭선생안의 직임은 짙게 표기함.
- \*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것은 ( )로 표기함.
- \* 출전: 이훈상·손숙경, 앞의 책, 2009. 『咸安趙氏東隱公(南溪公后)派譜』, 2008.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함안 조씨 가문은 임란 직전에 이들의 본 관지에서 이주해 와 향리와 상급 및 중·하급의 무임 직을 맡는 인물들을 다수 배출하였다. 이 가계에는 무임을 많이 배출하는 집안과 향리를 주로 배출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몰락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집안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큰 집인 감동 집안에서는 상급과 중·하급의 무임을 다수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면의 풍속을 관장하는 풍헌을 역임한 이도 있다.

### 3. 김녕 김씨: 김의련의 가계

임란 직후인 1612년(광해 4년)에 작성된 사천면 동안에 입록되어 있는 金儀連의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다.

광해군 13년(1621년) 신유년에 공이 유생 김효생 등과 더불어 상소해, “먼저 이이첨의 목을 베고 박정길과 한찬남도 참수하라”고 주장한 까닭으로 모두 먼 변방에 유배되었는데 계해년 인조반정 후에 김효생은 특별히 크게 등용되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공은 유배지 동래에서 죽어 장사를 지냈으므로 포상을 받는 조정의 은전을 혼자만 받지 못하였다.<sup>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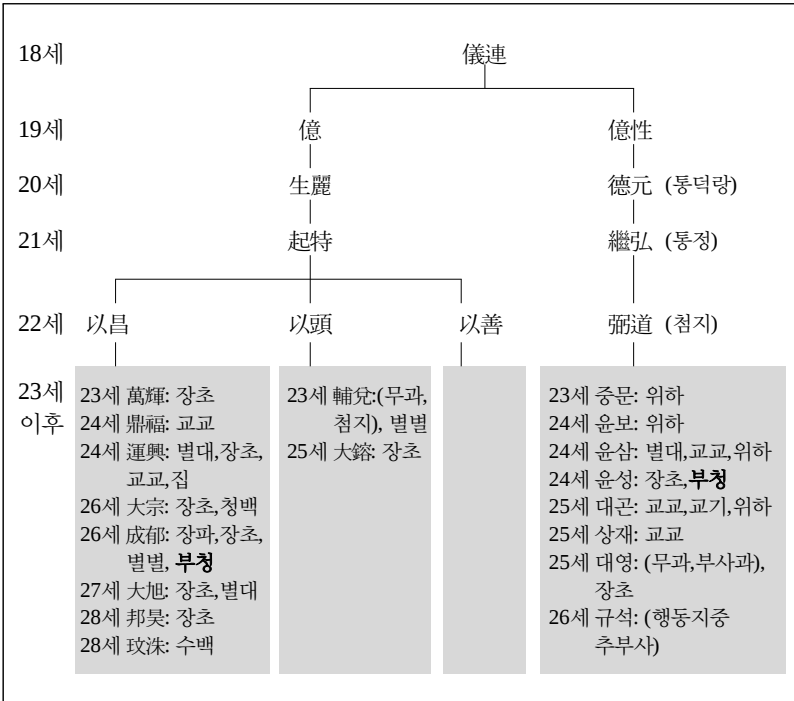
『전고대방』에 생원 金孝誠과 고부친, 김태우 등 24인이 연명상소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는 광해군 7년(1613년) 4월 4일의 기사에 김효성의 상소 내용이, 그 해 윤8월 18일의 기사에는 그를 유배형에 처했다는 사실이 서술되어 있다. 이로 보아 위 묘지명의 내용에 연대와 인명의 착오가 있지만 광해군 연간의 인현왕후에 대한 박해에 반대해 이이첨 등을 처벌하라는 연명상소를 올린 까닭으로 김의련이 사천면으로 유배와 살게 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들의 족보에는 위 묘비명의 기재 내용과 달리 그가 임진왜란 때 밀양에서 이주해왔다고 적혀 있다.<sup>43)</sup>

이 가계도 동래부의 무청선생안과 부청선생안에 성명이 등재되어 있는 인물들을 다수 배출하였는데 특히 24세 김윤성이 향리를, 26세 김성욱이 향리와 아울러 상급무임인 장군청 파총을 역임하였다.

42) 『沙上區誌』,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1078쪽.

43) 『金寧金氏益和君仁贊公後裔儀連公子孫家乘譜』, 1977.

〈표 31〉 김의련의 가계도



출전: 『金寧金氏益和君仁贊公後裔儀連公子孫家乘譜』, 1977.; 이훈상 손숙경, 앞 책,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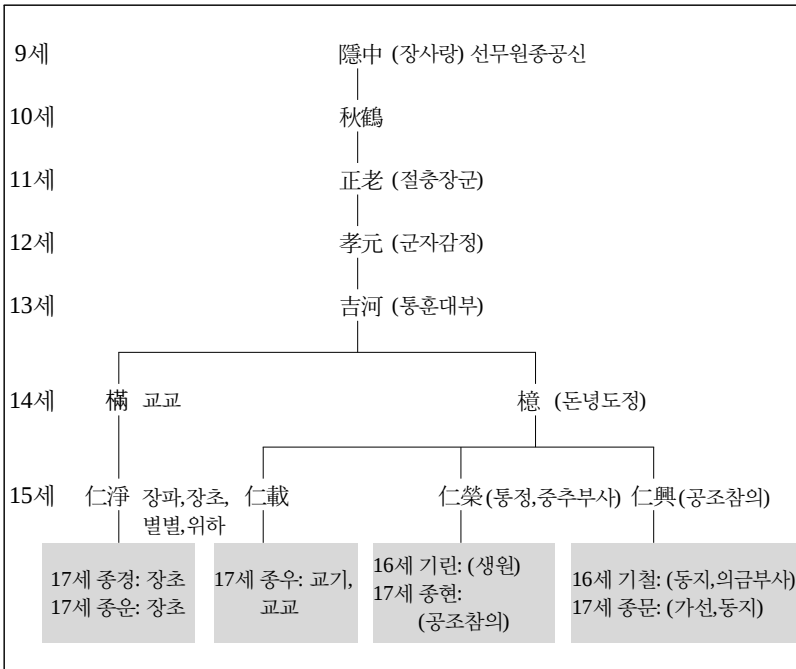
#### 4. 창원 황씨: 황추학의 가계

17세기 전반기 사천면 동계에 참여한 黃秋鶴의 가계는 그의 부친 黃隱中이, 사천 동안에 입록되어 있는 선무원종공신인 黃流元과 동일인이 라고 알려져 있는데<sup>44)</sup>, 임진왜란 당시 표류하여 남쪽으로 내려와 사천 면에 정착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천면에 세거하고 있다. 황씨는

44) 조정래, 『東萊沙川先生家』.

이 연구가 다루는 17세기 전반기 사천 동안에 가장 많은 인물들이 입록된 성씨이고 동중과 면유사 등의 최고 직임을 맡았는데 이들 황씨 인물들이 모두 동일 가계 출신으로서 이 가계의 인물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아무튼 이들의 족보에 따르면 입향조 황은중의 부친은 영흥부사를 역임하였다고 하는데 그 자신은 장사랑을, 손자인 11세 황정로는 절충장군, 12세 황효원은 軍資監正이었다고 하므로 이들은 모두 무임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손들 중 15세 황인정이 상급무임인 파총을, 14세 황만과 17세 황중경, 황중운, 황중우가 모두 중·하급 무임을 역임하였다.

〈표 32〉 황추학의 가계도



출전: 『昌原黃氏大同譜』, 1932.; 이훈상·손숙경, 앞 책, 2009.

## V. 맺음말

현재 전승되고 있는 동래 사천면의 면단위 동계의 동안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구동계좌목』이다. 이 문서책은 1612년과 1623년 및 1629년의 좌목들을 구봉상이란 19세기의 인물이 개개의 것을 수합하여 1권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내지의 제명에는 ‘동중 좌목’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17세기 초에 창립될 당시 이 조직의 명칭은 ‘동계’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 행정단위 역시 면이 아니라 그 하위의 동이었을 것이다. 1612년의 좌목 중 ‘洞中’이라는 명칭이 있던 자리에 1623년의 것에는 ‘面有司’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 사이 어느 때에 사천동이 면으로 승격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동계’와 ‘동중’이란 호칭이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출생 순으로 된 이 3개의 좌목에는 모두 63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들 중 현존하는 동래부의 향청과 서원 및 향교의 임원 명단에서 그 성명을 찾아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는 이들 중에 양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을 단위에서 위세가 있는 양반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때로 향사례를 행하고 계원들의 喪事에 부조하는 등 지역 엘리트들의 친목 및 상호부조 조직이었다. 그러나 현재 남은 기록상에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면에 부과된 잡역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15개의 성씨들이었는데 황씨가 가장 많고 김씨, 구씨, 최씨의 순이며, 황씨 성을 가진 인물이 최고 직임을 계속 맡고 있었다. 후손들이 이 지역에 세거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참여자와 그 가문 혹은 가계들의 사회 지위와 분화를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좌목에 입력되어 있는 선무원종공신 구영취의 가문은 그의 증조

부 때 이 지역에 이주해 와 임란 이전부터 사천면에 세거해 왔다. 그 후손들 중 무청선생안이나 부청선생안에 등재된 이들은 모두 구영취의 장남과 삼남의 후손들인데 특히 삼남의 큰 아들 후손에 집중되어 있어 이 가계의 분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양반들이 독점하여 향리 가계 출신자는 등용될 수 없었던 중군의 직위에 자신이 오른 것을 기념하여 17세기 초에 나온 좌목들을 수합해 1권으로 묶은 구봉상도 그의 후손들 중 한 명이다. 이 구봉상의 자손들 중에는 한말에 기장군수, 동명학교 교장을 하거나 일제 강점기에 총독부 경무관과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이들도 있으며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초대 총재가 된 이도 있다.

그리고 이들 가문에서 전승되어온 가승과 가첩을 살펴보면 17세기 말까지도 존속했던 다변적인 친족구성이 18세기 초에 부변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계의 두드러진 분화양상의 배경에는 이러한 친족구성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양반이 아닌 이족가문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이 친족 구성의 급속한 변화는 다른 가문이나 가계들의 분화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남평 문씨의 경우 동래 지역의 유력한 양반 가문이었다. 이들은 성안 집을 제외한 모든 집안에서 향청이나 서원 및 향교의 직임을 맡은 이들을 배출하였다. 특히 북면 미동집과 거벌집 및 반여집의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여기서 제외된 성안집은 양반들이 독점했던 이러한 직임 대신 향리나 무임직을 맡았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그 동안 양반들이 독점했던 동래부 최고위 무임인 중군을 3명이나 배출했다. 그리고 사상 동계에 참여한 사상집 역시 향청이나 향교의 직임을 맡은 이들을 배출하여 양반 가계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수가 다른 집안에 비해 크게 적은 반면 중·하급 무임으로 활동했던 이들의 수가 많았다.

임란 직전에 자신들의 본관지에서 이주해 온 함안 조씨 가계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성인 남성들이 모두 참전하였다. 이들이 이렇듯 전쟁에 적극 참여하였던 까닭은 동래부의 향리나 무임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선무원종공신 구영취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일 것이다. 전사한 이들은 모두 선무원종공신에 봉해졌고 생존한 이들은 동계에 참여하였다. 이 가계에는 다수의 무임을 배출한 집안과 향리를 주로 배출한 집안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몰락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집안도 있다. 그리고 이들의 종가인 감동 집안에서는 상급과 중·하급의 무임을 다수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풍헌을 역임한 이들도 있었다.

김의련의 김녕 김씨 가계도 무임과 향리들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선무원종 공신인 황은중의 창원 황씨 가계에서도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상급과 중·하급의 무임을 역임한 이들이 있었다.

이렇듯 17세기 초 동래 사천면의 면단위 동계 참여자와 그 후손들은 향리이거나 무임들이었다. 양반이라 하더라도 고을 단위에서 위세를 지니지 못하고 그 아랫 신분에서 주로 맡는 향리나 무임으로서 활동한 이들이 많았다.

## | 참고문헌 |

### 1. 자료

- 『沙川面 舊洞契 座目』 1612, 1623, 1629.
- 『戀舊契 重修座案』, 1922.
- 『東萊府誌』, 1740.
- 『金寧金氏益和君仁贊公後裔儀連公子孫家乘譜』, 1977.
- 『昌原具氏世譜』 1, 昌原具氏世譜所, 1981.
- 『昌原黃氏大同譜』, 1932.

『咸安趙氏東隱公(南溪公后)派譜』, 咸安趙氏東隱公派宗門會, 2008.

『東萊鄉校誌』, 동래향교, 2010.

金炳攝, 『昌原具氏 東萊門中誌』, 창원구씨 동래문중, 2012.

趙廷來, 『東萊沙川先生案』.

「남평문씨 인터넷 대동보」, <http://www.moonsi.com>.

## 2. 논문 및 저서

민선희, 「조선후기 동래의 향반사회와 무청」, 『역사학보』 139, 1993.

이훈상·손숙경, 『조선후기 동래의 武廳先生案과 武任 총람』, 동아대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09.

이훈상, 『부산여성상 I -근현대 속의 부산여성과 여성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9.

이훈상·진상원, 『조선후기 동래 사상면의 함안 조씨 가문과 이들의 고문서』, 동아대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15.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진상원, 「조선후기 동래 사상면 함안 조씨 가문의 가계 분화와 사회 지위의 차이 및 종족화의 두 방향」, 『한국민족문화』 55, 2015.

\_\_\_\_\_, 「조선후기 東萊府 沙川面(沙上面) 洞案 연구를 위한 예비적 검토」, 『항도부산』 37, 2019.

향촌사회연구회, 『韓國의 鄉約·洞契』,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996.

『東萊府使: 忠과 信의 목민관』, 부산박물관, 2009.

『沙上區誌』, 부산광역시 사상구, 2005.

주영택, 「남평 문씨」, 인터넷 웹사이트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 C04219340](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 C04219340).

|                                                                 |
|-----------------------------------------------------------------|
| 투고일 : 2021. 10. 20. 심사완료일 : 2021. 11. 21. 게재확정일 : 2021. 12. 07. |
|-----------------------------------------------------------------|

## 【 부 록 】

〈표 33〉 사천면 구동계 좌목

| 연번 | 성 명   | 좌 목   |       |       | 부 기   |       |       | 비 고     |
|----|-------|-------|-------|-------|-------|-------|-------|---------|
|    |       | 1612년 | 1623년 | 1629년 | 1612년 | 1623년 | 1629년 |         |
| 1  | 丁茂成   | 1     |       |       | 仙     |       |       |         |
| 2  | 朴碩珍   | 1     |       |       | 仙     |       |       |         |
| 3  | 李銀富   | 1     |       |       | 仙     |       |       |         |
| 4  | 崔性貴   | 1     |       |       | 仙     |       |       |         |
| 5  | 黃晚傑1  | 1     |       |       |       |       |       |         |
| 6  | 朴世番   | 1     | 1     |       | 仙     | 仙     |       | 기병 3등훈  |
| 7  | 許克良   | 1     | 1     | 1     |       |       | 仙     |         |
| 8  | 丁加音道利 | 1     | 1     | 1     | 他境    |       | 仙     |         |
| 9  | 金連壽   | 1     | 1     | 1     |       |       |       | 부호군 3등훈 |
| 10 | 李正全   | 1     | 1     | 1     |       |       |       |         |
| 11 | 仇今夫   | 1     |       |       | 仙     |       |       |         |
| 12 | 黃仁夫   | 1     | 1     | 1     | 他     |       | 仙     |         |
| 13 | 丁目音全  | 1     | 1     | 1     |       |       | 仙     |         |
| 14 | 朴成業   |       | 1     |       |       |       |       |         |
| 15 | 黃晚傑2  |       | 1     | 1     |       |       | 仙     |         |
| 16 | 仇榮鷺   | 1     | 1     | 1     |       |       |       | 금군 3등훈  |
| 17 | 徐時敏   | 1     |       |       |       |       |       |         |
| 18 | 金儀連   | 1     |       |       |       |       |       |         |
| 19 | 方順傑   | 1     |       |       | 仙     |       |       |         |
| 20 | 方世成   | 1     |       |       | 仙     |       |       |         |
| 21 | 金正連   |       | 1     |       |       | 仙     |       |         |
| 22 | 黃富    | 1     | 1     | 1     |       |       |       |         |
| 23 | 鄭檜春   | 1     |       |       | 仙     |       |       |         |
| 24 | 房用元   |       | 1     | 1     |       |       |       |         |
| 25 | 崔希傑   | 1     | 1     | 1     |       |       |       |         |
| 26 | 趙億千   | 1     | 1     | 1     |       |       |       |         |
| 27 | 黃軒    | 1     | 1     |       | 仙     | 仙     |       | 금군 2등훈  |
| 28 | 徐自房   | 1     |       |       |       |       |       |         |
| 29 | 徐達云   |       |       | 1     |       |       |       |         |

|    |      |   |   |   |      |   |   |         |
|----|------|---|---|---|------|---|---|---------|
| 30 | 許克連  | 1 | 1 | 1 |      |   | 仙 |         |
| 31 | 崔希弼  | 1 |   |   | 仙    |   |   |         |
| 32 | 朴訥○  |   | 1 | 1 |      |   |   |         |
| 33 | 丁克致  | 1 | 1 |   | 仙    |   |   |         |
| 34 | 趙國進  |   |   | 1 |      |   | 老 | 조억천의 叔父 |
| 35 | 崔元夫  | 1 | 1 | 1 |      |   | 仙 |         |
| 36 | 黃流元  | 1 |   |   | 移去金海 |   |   | 수군 3등훈  |
| 37 | 金兌壽  | 1 | 1 | 1 |      |   |   |         |
| 38 | 金永元  | 1 | 1 |   | 懲戒除名 |   |   |         |
| 39 | 仇世番  | 1 |   |   | 仙    |   |   |         |
| 40 | 仇戊貞  | 1 |   |   | 仙    |   |   |         |
| 41 | 黃秋鶴1 | 1 | 1 |   |      |   |   |         |
| 42 | 金奉明  |   |   | 1 |      |   |   |         |
| 43 | 李春福  | 1 | 1 | 1 |      |   |   | 별시위 3등훈 |
| 44 | 崔正蘭  | 1 |   |   | 仙    |   |   |         |
| 45 | 李德春  | 1 |   |   | 他    |   |   |         |
| 46 | 姜億山  | 1 | 1 |   | 他    | 他 |   |         |
| 47 | 仇榮立  | 1 | 1 |   | 仙    | 仙 |   | 구영취의 弟  |
| 48 | 文彦壽  | 1 | 1 | 1 |      |   |   |         |
| 49 | 崔達正  | 1 | 1 | 1 |      |   |   |         |
| 50 | 許今策1 | 1 |   |   |      |   |   |         |
| 51 | 徐彦祐  | 1 | 1 | 1 |      |   |   |         |
| 52 | 姜伯   | 1 | 1 | 1 |      |   | 仙 |         |
| 53 | 金萬富  | 1 | 1 |   | 他    | 他 |   |         |
| 54 | 文彦海  | 1 | 1 | 1 |      |   |   |         |
| 55 | 丁義勳  |   |   | 1 |      |   | 仙 | 정극치의 子  |
| 56 | 黃應祥  | 1 | 1 | 1 |      |   |   |         |
| 57 | 許今策2 |   | 1 |   |      |   |   |         |
| 58 | 趙今龍  |   |   | 1 |      |   |   | 조억천의 장남 |
| 59 | 黃乙生  |   | 1 | 1 |      |   |   |         |
| 60 | 仇得龍  |   | 1 | 1 |      |   |   | 구세번의 장남 |
| 61 | 孫熙祖  |   |   | 1 |      |   |   | 조억천의 사위 |
| 62 | 仇義○  |   | 1 | 1 |      |   |   |         |
| 63 | 朴德中  |   |   | 1 |      |   |   |         |

|     |      |      |    |    |  |  |  |  |
|-----|------|------|----|----|--|--|--|--|
| 64  | 黃秋鶴2 |      |    | 1  |  |  |  |  |
| 65  | 徐信命  |      |    | 1  |  |  |  |  |
| 계   |      | 47   | 37 | 35 |  |  |  |  |
| 公事員 |      | 李    | 徐  | ?  |  |  |  |  |
| 洞中  |      | 朴, 黃 | 黃  | ?  |  |  |  |  |



『조선평지』 동래부, 18세기 중엽, 규장각

| Abstract |

The Participants and Their Family Lineage of the Community Society(洞契) of the area of Sacheon (沙川面) of Dongrae County(東萊府) in the Earlier 17<sup>th</sup> Century of Chosun Dynasty

Jin, Sang-Won

There remains the membership list of participants of the community society as a Myun面 unit in the area of Sacheon of Dongrae County of the age of the first half of 17<sup>th</sup> century. However, there was not any information or life records about the participants, so the research tries to figure out their social characteristics by analysing their descendents' social positions.

These documentary texts as the data of the research were written in the year of 1612, 1623, and 1629, remaining as the oldest ones among regional historic texts of the community society. As the title of the documentary text is Dongjungzwamok洞中座目, we can suppose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would be Donggye洞契 as not administrative Myon面 unit but its sub-administrative Dong洞.

The names of 63 participating members of the society are listed in the text. Among them there was not any name of high members in the list of Hyangchong鄉聽, Seowon書院, and Hyanggyo鄉敎. It means that there were some low class yangban양반, but there were not any highbrow yangban. The organization sometimes would do village ritual ceremonies and help mourn with its members on the funeral ceremonies as one the regional societies of friendly gatherings and mutual assistance. Though we can find out the trace of proof in the documentary text, the community society would be organized to achieve out the regional labor projects.

In the research I tried to analyze some phenomenons of gaping social positions of the descendents of the organization by choosing some cases of their recognised descendents. Being on the track of the residential people and their family lineage, those society members would be considered as local clerks(鄉吏) or local military officers(武任). Though some of them came from aristocratic family (the *yangban*) or they would get the social position of the *yangban*, most of them would live as local clerks and military officers.

**Key words:** local clerk, local military officer, community society, the area of Sacheon of Dongrae County(동래부 사천면)